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의 『地獄變』 론 -원숭이의 보은을 통해서 본 예술적 구원-

孫順玉*
s-soonok@hanmail.net

< 目次 >

- | | |
|-----------------------|------------------------------------|
| 1. 서론 | 4. 원숭이의 긍정적인 이미지 변환 |
| 2. 원숭이에 관한 이미지 | 4.1 원숭이의 딸에 대한 행동 · 요시히데의 딸에 대한 행동 |
| 3. 원숭이의 등장 | 4.2 원숭이의 긍정적인 역할과 보은 |
| 3.1 부정적인 등장과정 | 4.3 원숭이의 예술적 구원 |
| 3.2 원숭이를 요시히데라고 부른 이유 | |
| 3.3 원숭이와 딸과의 관계 | 5. 결론 |

主題語: 원숭이(monkey), 요시히데(Yoshihide), 오오도노(Oodono), 은(favor), 보은(gratitude), 구원(save), 예술 승화(sublimate)

1. 서론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이하 아쿠타가와로 칭함 1892~1927)는 35세의 나이에 자살함으로 10년 남짓한 작가생활을 했지만 구메 마사오(久米正雄 1891~1952), 기쿠치 간(菊地寬 1888~1948)과 함께 제3, 4차 『신사조』의 동인으로서 대정(대정) 문단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대정 전기에는 주로 고전 설화집에서 인간상을 역설적이며 기교적으로 그렸다. 중기에는 인생을 지향하는 예술가를 주인공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만년에는 정신적으로 약해져 가는 인간의 고뇌를 그리고 근대적 자아의 한계와 파탄을 느끼고 있는 정신세계를 그렸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아쿠타가와에 대한 연구는 염세적이며 예술지상주의를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회의적인 인간상으로 언급해 왔다.

『지옥변(地獄變 1918)』은 세속적인 권위나 권력의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소유자로서 스스로 느낀 사실에 충실해서 창작하는 예술가 요시히데의 「황홀한 범열의 광휘」

* 동의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

(恍惚とした法悦の輝き)를 통해 고독하면서도 예술가의 존재감을 극적으로 그려나간 작품이다. 즉 『지옥변』에서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예술지상주의와 권력과 예술의 상극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원숭이는 화가 요시히데의 분신이라고만 가볍게 치부해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논자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원숭이를 등장시킨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의도는 원숭이의 보은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작품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동물의 보은에 대해 조금 언급하기로 한다.

동물의 보은에 관한 것은 일본, 한국, 중국 등지에서 영화나 애니메이션, 설화에서 가끔 볼 수 있다. 이 보은이라는 것은 일본문화를 잘 나타내는 주요키워드가 될 만큼 일본인들의 정신문화에 깊이 박혀 있는 정서이기도 하다. 세상으로부터 받은 고마움은 온(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일본 문화를 가장 알기 쉽고 정확히 분석한 책자로서는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을 들 수 있다. 서양인의 사고방식으로 분석한 일본문화이지만 핵심을 찌르는 관찰력으로 일본인과 일본 문화의 특징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했다.¹⁾ 온 은 세상으로부터 받은 고마움과 은혜를 온²⁾ 이라고 할 수 있다. 온은 한평생 짝어진 무거운 부담이자 채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지 온을 받아서 기쁘다든가 감사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받은 온은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일본의 특유의 가치관이 있다.³⁾ 는 일본인의 사회적 결합이나 인간적 유대관계를 지탱해 주는 조직적인 원리 중의 하나로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했다. 온 은 받은 은혜를 갚는다는 지극히 보편적인 가치관에서 출발하였는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는 고대부터 동물의 보은 설화와 같은 것이 여러 개 전해 내려온다. 예를 들면 학의 보은, 고양이의 보은, 하치이야기 등과 같이 옛날이야기나 설화, 전설에서 엿 볼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아쿠타가와와 작품 속에도 개, 귀뚜라미, 여우, 고양이 등과 같은 여러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원숭이가 제목으로 되어있는 작품도 몇 가지가 눈에 띈 정도다. 그러나 앞서서도 예를 든 바와 같이 보은은 주로 원숭이 이외의

1) 박송정(2011) 『갈기는 일본 복치는 한국』씽크뱅크 p.54

2) 온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은혜, 덕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에게 받은 모든 종류의 은혜와 고마움을 말한다. 중요한 온 은 부모로부터 받은 온 이다. 이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보살핌과 수고를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 자식들은 부모에게 빚을 지고 있으며 노후에 부모를 보살핌으로서 이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인은 조상숭배의 대상을 아직도 머릿속의 기억에 남아있는 최근의 조상에 한정한다. 이 밖에도 일본인은 살아가는 가운데 스승으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또는 주위사람들로부터 여러 온을 입게 된다. 그런데 일본인은 채무로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온은 한 평생 짝어진 무거운 부담이자 채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지 온 을 받아서 기쁘다, 감사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받은 온은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에 일본인 특유의 가치가 있다. 정현숙정미애 공저(2005) 『일본 사회문화의 이해』 한국방송대학출판부. p.70

3) 위의 책. p.54

동물에서만 거의 볼 수가 있었으며 원숭이라는 동물은 대부분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 아쿠타가와와의 작품 『원숭이와 게의 전쟁(猿蟹合戦, 1923. 3)』 『원숭이(猿, 1916. 9)』에서도 원숭이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다. 『원숭이와 게의 전쟁』에서는 김밥대신에 게에게 익지 않은 감만 주었던 원숭이는 게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악의만 저지르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 작품 『원숭이』에서는 항해 중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누군가로부터 얻어온 원숭이인데 원숭이가 상자에서 빠져나와 시계를 쥔 채로 뚫대로 기어오르려고 했다. 그 때 수병 두 명에게 잡혀 버렸다. 나중에 원숭이는 포도대장의 제안으로 만 이틀 동안 단식이란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 대강의 줄거리다.

『지옥변』의 총 20장중에서 원숭이와 딸이 등장하는 부분은 2장, 3장, 12, 13, 18, 19, 장이다. 또한 冒頭와 다름없는 2장에서 요시히데와 원숭이와 딸이 동시에 묘사되고 있는 것과 작품 총 20장중에서 원숭이가 6장이나 등장한다는 것은 필시 작자의 숨은 의도가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하태후는 외동딸과 원숭이의 관계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의인화된 원숭이를 묘사함으로써 외동딸과 원숭이 사이에 수간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정도의 관계가 특수하게 설정되고 있다. 이처럼 작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동딸과 원숭이의 관계를 보통이 아닌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⁴⁾고 지적했다. 때문에 본 연구는 작가가 원숭이를 등장시킨 그 의도와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원숭이에 관한 이미지

아래의 시를 통해 원숭이의 이미지를 알 수 있다.

원숭이가 이곳에 많아뛰노는 걸 보면 마치 눈이라도 내리는 듯/새끼를 가지에서 끌어 내려와/물 속의 달을 마시기도 하고 ---이백⁵⁾「추포가(秋浦歌)」

이 시에서 원숭이는 ‘물속의 달’을 마시면 눈처럼 뛰어내린다는 시형이 암시하듯이 은혜로운 존재로 노래된다. (중략) 원숭이는 피가 많고 영리하다는 점에서 저열한 힘, 호기심, 암흑, 무의식적 행위를 상징한다. 그러나 이런 상징적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하나는

4) 하태후(2010)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지옥변 론」 『일어일문학연구』 제74집 2권, p.223

5) 이백은 두보와 더불어 당나라 때 최고의 시인일 뿐만 아니라 중국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논자주)

이런 무의식적 힘이 개인을 격하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을 상징하고 다른 하나는 무의식적인 힘이 그렇듯이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이다. 중국에서 원숭이가 건강, 성공, 보호를 상징하면서 요정이나 마법사와 관련되는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다.⁶⁾ 에셔와 같이 이 원숭이는 결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은혜로운 존재며 영리한 동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시와리 도루(石割透)는 크라르테의 『원숭이』에 나오는 원숭이에 대하여 모리 오가이의 『여러 나라 이야기』의 증역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원숭이의 가장 좋은 성질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원숭이를 익살스러운 것으로 떠들어대고 있는 인간보다도 훨씬 잔혹하지 않다는 것이다. 원숭이는 옛날부터 인간의 흉내를 내고 있지만 아직 인간의 난폭함과 나쁜 행실을 흉내 낸 적은 없다. 단지 하나 원숭이가 인간보다 뛰어나지 않은 점은 확실히 인간과 같이 질투를 한다는 것이다. 뷔퐁이 기르고 있던 침팬지 종의 원숭이는 주인이 좋아했던 여자가 올 때마다 싫어하여 주인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 위협했다고 한다.⁷⁾

비록 원숭이가 인간의 지능에는 비할 바가 아니지만 인간과 같이 질투도 하고 인간보다 잔혹하지 않으며 원숭이에게도 좋은 성질은 갖고 있다. 이것을 보더라도 원숭이는 이 작품을 연구하는 데에 많은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3. 원숭이의 등장

3.1 부정적인 등장과정

원숭이의 등장 과정은 부정적인 등장이었다. 왜 부정적인 등장이었는가는 아래의 본문 속에서 잘 묘사되고 있다.

단바(丹波: 지금의 교토중앙과 효고 현 동부의 옛 지명) 지방에서 사람을 잘 따르는 원숭이 한 마리를 현상한 자가 있었습니다. 마침 장난이 한창때인 도련님이 이 원숭이한테 요시히데라는 이름을 붙였지요. 그렇지 않아도 그 원숭이 모양이 우스운데 이런 이름까지 붙여졌으니 저택안의 어느 누군들 웃지 않는 자가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웃기만 하면 좋겠는데 뭐 딸의 소나무에 올랐다

6) 이승훈(2009) 『문학으로 읽는 문화상징사전』 푸른사상, p.433

7) 하태후(2010) 『일어일문학연구』 제74집 2권, pp.223-224 재인용

느니, 새 다타미를 더럽혔느니 하며 그때마다 “요시히데 요시히데”하고 마구 불러대면서 마구 놀려대는 것이었습니다.⁸⁾ (2장)

위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원숭이는 원래부터 사람을 잘 따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원숭이였다. 원래 그런 것인지 아니면 훈련을 잘 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원숭이에게 어린 도련님이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것도 요시히데라고 지었다. 사람들은 요시히데라는 이름만 들어도 우스운데 생긴 모양까지 비슷하다고 하여 저택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어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놀림감이 되어 버렸다. 웃을 뿐 만 아니라 어떤 일의 핑계를 만들어 이름도 제멋대로 부르며 모두로부터 비웃음을 받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3.2 원숭이를 요시히데라고 부른 이유

마침 장난이 한창때인 도련님이 원숭이를 요시히데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다음에 잘 나타나 있다. 제2장의 이야기는 <가타리테>의 설명에 의하여 인식하고 무자비한 데다 게으르고, 욕심도 많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방자하고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는 인간인 요시히데의 성격을 둘러싸고 시작된다. 그리고 제3, 4, 5장 역시도 요시히데의 인물묘사를 중심으로 <가타리테>의 설명이 이어진다. 작품 속에서 묘사되는 요시히데는 「키도 작고 뼈와 가죽뿐인 심술궂게 생긴 노인(背の低い、骨と皮ばかりに瘦せた、意地の悪さうな老人)으로서 그 성격 또한 「아주 비열하고(卑しい方), 그리고 웬지 「섬뜩한 짐승 같은 느낌(如何にも獣めいた心もち)을 불러일으키는 「원숭이히데」(猿秀)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다.

요시히데라고 하면 지금도 그 사람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분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화필에 있어서만큼은 요시히데 오른쪽에 나설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할 만큼 이름 높은 화가였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나이도 그럭저럭 50 고개에 다 달았을까요. 보기엔 그저 키가 작고 뼈가 가죽뿐인 심술궂게 생긴 노인이었습니다. 대영주님의 저택에 출입할 때에는 흔히 귀족들의 평상복에 모미에 보시를 쓰고 있었습니다만, 인품은 이름과 달리 아주 비열한 편이고 웬지 나이답지 않게 입술이 유난히 붉은 것이 게다가 섬뜩한 느낌의 짐승 같은 감을 일으키게 했지요. 어떤 사람은 그가 입으로 그림붓을 빨기 때문에 붉은 물감이 뱀 것이라고 합니다만 글썩 그 얘기가

8) 丹波の國から人馴れた猿を一匹、獻上したものがございまして、それに丁度悪戯盛りの若殿様が、良秀と云ふ名を御つけになりました。唯でさ〜その猿の容子が可笑しい所へ、かやうな名がついたのでございまして、御邸中誰一人笑はないものはございせん。それも笑ふばかりならよろしうございまして、面白半分には皆のものが、やれ御庭の松に上つたの、やれ曹司の疊をよごしたのと、その度毎に、良秀々々と呼び立てゝは、兎に角いちめたがるのでございまして。p.185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입버릇이 사나운 친구들은 요시히데의 행동거지가 원숭이 같다고 하면서 사루히데라는 별명까지 붙이기도 했습니다.9) (2장)

왜 이렇게 어린 도련님도 원숭이를 요시히데라고 불렀을까요. 위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저 어린 도련님의 눈에 비친 요시히데가 키가 작고 뼈가 가죽뿐인 모습이 마치 원숭이 같이 못생기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비쳐 졌을 것이다. 어른들의 눈에는 유명한 화가인지는 모르지만 심술궂게 생긴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고 또 비열하고 입술이 유난히 붉은 것이 얼핏 원숭이의 뒷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3.3 원숭이와 딸과의 인연

다음은 원숭이가 어떤 계기로 하여 딸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가를 아래의 인용문에서 잘 묘사하고 있다.

어느 날의 일로, 앞에 말씀드린 요시히데의 딸이 편지를 매단 한 홍매가지 하나를 들고 긴 복도를 지나고 있자니까 먼 미닫이 저편에서 이 작은 원숭이가 아마 말뚝이라도 빼었는지 여느 때처럼 기둥에 오를 기운도 없이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정신없이 이쪽으로 도망쳐 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뒤에는 회초리를 든 도련님이 “굴 도둑놈 게 섰거라, 게 서!”하면서 쫓아 오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본 요시히데 딸은 잠깐 망설이는 듯했으나 마침 도망쳐 온 원숭이는 그녀의 하카마 자락에 매달리면서 슬픈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그러자 측은하디는 마음을 누를 수가 없었던 게지요. 한쪽 손에는 매화 가지를 그대로 든 채 다른 손으로 보랏빛 웃옷 소매를 가볍게 필력이며 팔을 벌려 따뜻하게 원숭이를 안아 올리고는 도련님 앞에 허리를 굽히며---10)

- 9) 良秀と申しましたら、或は唯今でも猶、あの男の事を覚えていらつしやる方がございませう。その頃繪筆をとりましては、良秀の右に出るものは一人もあるまいと申された位、高名な繪師でございませう。あの時の事がございました時には、彼はもう五十の阪に、手がとゞいて居りましたらうか。見た所は唯、背の低い、骨と皮ばかりに瘦せた、意地の悪さうな老人でございました。それが大殿様の御邸へ参ります時には、よく丁字染の狩衣に揉烏帽子をかけて居りましたが、人がらは至つて卑しい方で、何故か年よりらしくもなく、唇が目立つて赤いのが、その上に又氣味の悪い、如何にも黙めいた心もちを起させたものでございませう。中にはあれは畫筆を舐めるので紅がつくのだと申した人も居りましたが、どう云ふものでございませうか。尤もそれより口の悪い誰彼は、良秀の立居振舞が猿のやうだとか申しまして、猿秀と云ふ譚名までつけた事がございました。p.184
- 10) 或日の事、前に申しました良秀の娘が、御文を結んだ寒紅梅の枝を持つて、長い御廊下を通りかゝりますと、遠くの遣戸の向うから、例の小猿の良秀が、大方足でも挫いたのでございませう、何時ものやうに柱へ驅け上る元氣もなく、跛を引き / \、一散に、逃げて参るのでございませう。しかもその後からは楚をふり上げた若殿様が「柑子盗人め、待て。待て。」と仰有りながら、追ひかけていらつしやるのではございませうか。良秀の娘はこれを見ますと、ちよいとの間ためらつたやうでござ

어느 날 요시히데의 딸이 아가씨의 심부름으로 복도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원숭이를 만난다. 그 원숭이는 도련님한테 쫓기고 있는 신세다. 이유인즉 꺾을 흠뻑했다고 한다. 도망을 가다가 발을 빼어 나무에도 평소와 같이 빨리 올라갈 수 없는 입장이 되어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때 마침 딸을 보자 치맛자락에 매달리면서 애처로운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하자 딸은 측은지심을 어찌할 수가 없어 도련님에게 사정을 한다. 이 원숭이가 자신의 아버지와 너무나 비슷한 처지이며 또한 자신의 아버지가 벌을 받는 것 같아 그냥 보고만 지나칠 수 없다고 애원을 한다. 그러자 도련님이 마지못해 용서를 하자 딸은 원숭이를 구하게 된다. 딸과 원숭이가 사이 좋게 된 것은 딸이 원숭이를 어린 도련님으로부터 구해준 후부터였다. 또한 아가씨한테 받은 황금방울을 아름다운 진홍색 끈에 매달아 원숭이 목에 걸어주었다. 이런 일로 인연이 시작되어 원숭이는 딸이 어디를 가나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 다니기 시작한다. 이것을 계기로 원숭이와 딸의 관계가 이어지게 된다. 거의 冒頭라고 할 수 있는 2장에서 원숭이와 딸과 요시히데를 묘사한 것은 이후 어떤 중요한 관련이 있을 것을 암시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19장에서도 원숭이와 요시히데, 그 딸도 함께 등장시킨 것을 보면 이 작품에서 원숭이의 역할과 작자의 의도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4. 원숭이의 긍정적인 이미지 전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 후로 원숭이는 딸로 인해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아래의 본문과 같이 가타리테는 설명하고 있다.

이상하게도 이제는 누구도 예전처럼 원숭이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점점 귀여워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도련님도 가끔씩 감이나 밤을 던져주기까지 하셨을 뿐 아니라 시종중의 누군가가 이 원숭이에게 발길질을 했을 때는 화를 내시기조차 하셨습니다.(중략)그러니까 대감님께서 요시히데의 딸을 아끼시게 된 것은 원숭이를 귀여워한 효성 지극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다.¹¹⁾ (3장)

いですが、丁度その時逃げて來た猿が、袴の裾にすがりながら、哀れな聲を出して啼き立てました—と、急に可哀さうだと思ふ心が、抑へ切れなくなつたのでございませう。片手に梅の枝をかざした儘片手に紫匂の桂)の袖を輕さうにははりと開きますと、やさしくその猿を抱き上げて、若殿様の御前に小腰をかざめながら---p.185

11) 妙なもので、誰も今までのやうにこの小猿を、いぢめるものはございませぬ。いや、反つてだん / \ 可愛がり始めて、しまひには若殿様でさへ、時々柿や栗を投げて御やりになつたばかりか、侍の誰やらがこの猿を足蹴にした時なぞは、大層御立腹にもなつたさうでございませぬ。その後大殿様がわざ

이처럼 처음에는 온갖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던 원숭이가 딸로 인해 일반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물며 가장 위엄 있고 평범한 사람들을 별별 떴게 하는 오오도노조차에게도 원숭이는 귀여움을 받는 존재가 된다. 이 정도라면 충분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탈바꿈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한다는 것은 이후 딸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복선을 깔고 있다고 생각한다.

4.1 원숭이의 딸에 대한 행동 · 요시히데의 딸에 대한 행동

3장에서도 원숭이와 딸 사이를 예사롭지 않게 묘사하고 있다. 원숭이의 딸에 대한 행동을 살펴보자.

딸은 아가씨에게 받은 황금방울을 빨간 줄에 달아 목에 걸어 주었고 원숭이도 딸 옆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감기기운으로 자리에 누웠을 때도 원숭이는 베개 밑에 앉아 관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허전한 얼굴로 계속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중략) 그 때 딸에게는 빨간 속옷을 하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속옷을 원숭이가 걸눈질로 배워 공손하게 반잡는 흉내를 내던 터라 영주님께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셨습니다. (중략) 이후 원숭이와 여러모로 귀염을 받았으며 특히 아가씨 옆에서는 한시도 떨어지는 일이 없을 정도였고 더욱이 성 밖 행차에는 빠지는 적이 없었습니다. (12) (3장)

위와 같은 이유로 원숭이는 딸의 도움으로 영주뿐 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다. 원숭이가 자신을 구해준 이후부터 딸의 분신과 같이 따라 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딸의 몸종처럼 밤낮으로 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 ‘감기가 들어서 자리에 누웠을 때도 원숭이는 그 머리맡에 지키고 앉아서’ 에서도 딸에 관한 일이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면 인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 \ 良秀の娘に猿を抱いて、御前へ出るやうと御沙汰になつたのも、この若殿様の御腹立になつた話を、御聞きになつてからだとか申しました。その序に自然と娘の猿を可愛がる所由も御耳にはいつたのでございませう。p.187

- 12) 娘は御姫様から頂戴した黄金の鈴を、美しい眞紅の紐に下げて、それを猿の頭へ懸けてやりますし、猿は又どんな事がございまして、滅多に娘の身のまはりを離れません。或時娘の風邪(かぜ)の心地で、床に就きました時なども、小猿はちやんとその枕もとに坐りこんで、氣のせゐか心細さうな顔をしながら、頻に爪を噛んで居りました。(中略)娘はその時、紅の栞を御褒美に頂きました。所がこの栞を又見やう見眞似に、猿が恭しく押頂きましたので、大殿様の御機嫌は、一人よろしかつたさうでございます。(中略)それ以來、猿と一しよに何かといとしがられまして、取分け御姫様の御側からは御離れ申した事がないと云つてもよろしい位、物見車の御供にもついぞ缺けた事はございませんでした。pp.187-188

무심한 인간 보다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된다.

반면 원숭이 요시히데의 딸에 대한 행동은 어떠한가. 원숭이 요시히데는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 처지이다. 사람들은 뒤에서는 요시히데를 원숭이 히데라고 불렀다.

이것은 요시히데의 제자들끼리는 그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인간성에 대해서는 성격이 비열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다. 그 성격을 보자면 구두쇠에 탐욕스럽고 얽치없고 게으르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오만불손하며 늘 자기를 이 나라 제일의 화공으로 자처하고 다닌다. 세상 관습이나 관례를 우습게 알며 안하무인격이며 사도에 빠져 있다. 그러나 딸에 대한 생각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절 같은 데 시주나 공양 같은 것은 한 번도 하지 않는 요시히데가 딸에 대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을 정도다. 하지만 그렇게 애지중지 하면서도 머지않아 시집을 보낼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원숭이에 대한 간접묘사는 원숭이=요시히데라는 등식처럼 요시히데를 원숭이로 묘사하는 것, 또는 원숭이를 요시히데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논했듯이 원숭이는 두 부류의 원숭이로 나눌 수가 있다. 도입부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는 원숭이는 화가 요시히데와 같은 원숭이라고 할 수 있다. 인품도 다른 사람들의 입에 나쁘게 오르내리듯이 화가 요시히데의 외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격도 이상하고 괴팍해서 짐승 원숭이와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후반부에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전환되고 있다. 원숭이 요시히데는 절 같은 데 시주나 공양 같은 것은 한 번도 하지 않지만 딸에 대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을 정도이며 딸을 애지중지하는 요시히데로 볼 수 있다. 이것이 두 부류의 원숭이의 의인화를 통해 요시히데의 딸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다.

4.2 원숭이의 긍정적인 역할과 보은

원숭이는 언제 어디서나 딸이 가는 곳이라면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일거수일 투족을 지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침 그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시각이 이슥해서 제가 혼자 마루를 지나가고 있자니까 그 원숭이 요시히데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오더니 제 하카마 자락을 자꾸 잡아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매화 향기라도 풍길 것 같은 희미한 달빛의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그 빛으로 살펴보니 원숭이는 허연 이빨을 드러내고 코끝을 주름 지으면서 미친 것처럼 시끄럽게 울어대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기쁜 나쁜 것이 30% 쯤 이고, 새 하카마를 잡아끌어 껴찜한 것이 70% 쯤으로 처음에는 원숭이를 걷어차 버리고 그대로 지나쳐 버릴까도 했으나 전에 이 원숭이를 때렸기 때문

에 도련님의 노여움을 산 무사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게다가 원숭이의 거동이 아무래도 예삿일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는 마음을 정하고 원숭이가 잡아끄는 쪽으로 5, 6칸 걸어갔 습니다.¹³⁾ (12장)

이것은 원숭이가 딸이 위험에 처한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에게라도 알려야겠다는 다급한 마음을 알 수 있다.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오더니 제 하카마 자락을 자꾸 잡아끄는 것이었습니다.’ ‘허연 이빨을 드러내고 미친것처럼 시끄럽게 울어대고 있다’ 와 같이 가타리테는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했으나 원숭이의 행동이 너무나 거세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즉 이것은 원숭이가 딸을 위해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래의 문장에서도 원숭이가 말을 할 수 없는 동물이라서 딸이 위기에 처했음에 도 알릴 수 없는 답답함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원숭이는 제 거동이 도무지 답답해 못 견디겠다는 듯이 두세 번 내 발 둘레를 뛰며 맴도는가 싶더니 마치 목이라도 졸리는 듯한 소리로 울면서 느닷없이 내 어깨위로 펄쩍 뛰어 올랐습니니다. 나는 급히 목을 뒤로 젖히면서 그 손톱에 긁히지 않으려 하고 원숭이는 스이칸의 소매를 물고 늘어지며 내 몸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중략)그러자 열 걸음도 못가서 또 누가 제 하카마 자락을 뒤에서 가만히 잡아끄는 것이 아답니까. 저는 놀라서 뒤돌아보았습니니다. (중략) 보니까 내 발치에 저 원숭이 요시히데가 사람처럼 두 손을 땅에 짚고 금방울을 울리면서 몇 번이고 공손하게 머리를 숙이며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14) (13장)

딸의 위기상황을 알리기 위해서는 인간과 같이 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 13) 丁度その頃の事でございます或夜、更が闌けてから、私が獨り御廊下を通りかゝりますと、あの猿の良秀がいきなりどこからか飛んで参りまして、私の袴の裾を頻りにひつばるのでございます。確、もう梅の匂でも致しさうなうすい月の光のさしてゐる、暖い夜でございましたが、其明りですかして見ますと、猿はまつ白な齒をむき出しながら、鼻の先へ皺をよせて、氣が違はないばかりにけたましく啼き立てゝゐるではございませんか。私は氣味の悪いのが三分と、新しい袴をひつばられる腹立たしさが七分とで、最初は猿を蹴放して、その儘通りすぎようかとも思ひましたが、又思ひ返して見ますと、前にこの猿を折檻して、若殿様の御不興を受けた侍の例もございませぬ。それに猿の振舞が、どうも唯事とは思はれませぬ。そこでとう／＼私も思ひ切つて、そのひつばる方へ五六間歩くともなく歩いて参りました。 pp.207-208
- 14) 所が猿は私のやり方がまだるかつたのでございませう。良秀はさもさももどかしさうに、二三度私の足のまはりを駆けまはつたと思ひますと、まるで咽を絞められたやうな聲で啼きながら、いきなり私の肩のあたりへ一足飛に飛び上りました。私は思はず頭を反らせて、その爪にかけられまいとする、猿は又水干の袖にかじりついて、私の體から送り落ちまいとする(中略、—その拍子に、私はわれ知らず二足三足よろめいて、その遣り戸へ後ざまに、したまか私の體を打ちつけました。(中略) 見るとそれは私の足もとにあの猿の良秀が、人間のやうに兩手をついて、黄金の鈴を鳴しながら、何度となく丁寧と頭を下げてゐるのでございました。 pp.208-209

‘두세 번 내 발 들레를 뛰며 맴도는가 싶더니 마치 목이라도 졸리는 듯한 소리로 울면서 느닷없이 내 어깨위로 펼쩍 뛰어 올랐습니다.’ ‘스이칸의 소매를 물고 늘어지며 내 몸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에서와 같이 원숭이의 역할은 현재 딸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 재빨리 가타리테에게 알릴 수 없는 답답함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원숭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다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그 상황을 도와주자 마치 인간인 것처럼 의인화시켜 고마움의 표시를 정중하고 공손하게 인사했다고 했다. 이것은 19장에서 원숭이가 인간역할을 하도록 독자들에게 암시를 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4.3 원숭이의 예술적 구원

앞에서도 이미 원숭이가 딸을 위해 한 역할에 대해 언급했지만 특히 18장에서 원숭이의 역할이 가장 긴장되는 부분이며 이 논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갑자기 무언가 까만 것이 땅에 닿지도 않고 하늘을 날지도 않으면서 공처럼 뛰면서 높은 지붕에서 한창 불타는 수레 속으로 일직선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붉게 칠 한 것 같은 창살이 투덕투덕 떨어지며 타는 속에서 뒤로 젖힌 소녀의 어깨를 안고 비단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를, 말 할 수 없이 괴로운 듯이 연기 밖으로 길게 날려 보냈습니다. 언달아 두 번, 세 번---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악하고 일제히 외쳤습니다. 장막 같은 불길을 뒤로 하고 소녀의 어깨에 달라붙어 있는 것은 호리카와의 저택에 매놓았던 저 요시히데라는 이름의 원숭이였던 것입니다.¹⁵⁾(18장)

‘공처럼 뛰면서 높은 지붕에서 한창 불타는 수레 속으로 일직선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타는 속에서 뒤로 젖힌 소녀의 어깨를 안고 비단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를’에서와 같이 자신을 도와주고 사랑해준 사람을 위해서라면 지옥까지도 따라갈 수 있는 이 원숭이의 무조건적인 보답을 알 수 있다. 요시히데는 처음에는 딸의 불타는 모습을 보고 ‘목이 잘리기 직전의 도둑이라도 혹은 염라대왕 앞에 끌려 나간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그토록 고통스러운 얼굴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와 같은 표정이었지만 불 속에 뛰어들어 딸과 함께 있는 원숭이로 인해 다음과 같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다.

15) 忽ち何か黒いものが、地にもつかず宙にも飛ばず、鞆のやうに躍りながら、御所の屋根から火の燃えさかる車の中へ、一文字にとびこみました。さうして朱塗のやうな袖格子が、ばら／＼と焼け落ちる中に、のけ反つた娘の肩を抱いて、帛を裂くやうな鋭い聲を、何とも云へず苦しさに、長く煙の外へ飛ばせました。續いて又、二聲三聲—私たちは我知らず、あつと同音に叫びました。壁代のやうな焰を後にして、娘の肩に縋つてゐるのは、堀河の御邸に繋いであつた、あの良秀と譚名のあゝ、猿だつたのでございますから。p.221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토록 지옥의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이던 요시히데가 지금은 말 할 수 없는 광채를, 마치 황홀한 범열의 광채 같은 것을 주름이 가득한 얼굴에 가득 띄운 채 대감님 앞이라는 사실조차 잊었는지 가슴에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중략)하늘 가득히 울려 퍼지는 수레의 불과 그것에 넋을 빼앗겨 꼼짝도 않고 서 있는 요시히데--그 장엄함과 환희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16) (19장)

이처럼 자기도 모르게 수레 쪽으로 달려가려고 하던 요시히데가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된 것은 필시 원승이가 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원승이가 자신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차피 딸이 불에 타 죽는 것을 구하지 못한다면 딸을 위해 병풍에 지옥변을 완성시켜 예술로 승화시키고 또한 오오도노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다짐했을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도 원승이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구해준 보답으로 딸과 함께 했으며 또한 딸이 사랑하는 아버지 요시히데가 지옥변을 완성시키는 데에도 큰 활약을 했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지옥변』에서 원승이의 보은에 대해 고찰한 결과, 처음에는 원승이의 등장과정이 부정적인 이미지였다. 원승이가 처음에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생긴 것 자체부터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작가가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시켰다고 할 수 있다. 어린 딸로부터 사랑받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로 부터 구원 받은 대가로 불타고 있는 수레에 요시히데의 딸과 함께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의리 있는 짐승이며 딸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원하는 그림을 완성할 수 있게끔 간접적으로 도와주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시히데가 오오도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것은 비록 짐승이라 인간처럼 말은 할 수 없고 지능조차 인간에 비할 수는 없지만 딸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 주었으며 또한 위협에 처했을 때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일본의 문화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주군에 대한 보은을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 이 작품에서는 처음에는 원승이의 이미지가 부정적이었으나 딸의

16) 何と云ふ不思議な事でございませう。あのさつきまで地獄の責苦に悩んでみたやうな良秀は、今は云ひやうのない輝きを、さながら恍惚とした法悦の輝きを、皺だらけな満面に浮べながら、大殿様の御前も忘れたのか、兩腕をしつかり胸に組んで、佇んでゐるではございませうか。(中略)空一面に鳴り渡る車の火とそれに魂を奪はれて、立ちすくんでゐる良秀と—何と云ふ莊嚴、何と云ふ歡喜でございませう。p.222

사랑을 받음으로서 딸이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의 예술을 승화시키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해 갔다. 결국은 말을 하지 못하는 짐승도 인간에게 보답을 할 줄 안다는 것이다. 즉 이 작품을 통해 현재 독자들에게 우리가 가슴속에 지니고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상기시켜주고 있으며 자꾸 잊혀져가는 고마움에 대한 문화의 자세를 원숭이라는 동물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결국 원숭이는 딸의 보은을 통하여 화가 요시히데가 예술적 구원을 얻는데 큰 일조를 하기 위해 원숭이를 등장시킨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參考文獻】

- 텍스트(1978) 『芥川龍之介全集 第2卷』岩波書店
진웅가김진욱 옮김(2000) 『아쿠타가와 작품선』범우사
박송정(2011) 『칼 가는 일본 북치는 한국』씽크뱅크, p.54
정현숙정미애 공저(2005) 『일본 사회문화의 이해』한국방송대학출판부, p.70
하태후(2010)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지옥변 론」 『일어일문학연구』제74집 2권, p.223
이승훈(2009) 『문학으로 읽는 문화상징사전』푸른 사상, p.433

논문투고일 : 2012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2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07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07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7월 25일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의 『地獄變』론 -원숭이의 보은을 통해서 본 예술적 구원-

지금까지 『지옥변』에서 원숭이의 보은에 대해 고찰한 결과, 처음에는 원숭이의 등장과정이 부정적인 이미지였다. 원숭이가 처음에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생긴 것 자체부터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작가가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시켰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요시히데가 오오도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문화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주군에 대한 보은을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 이 작품에서는 처음에는 원숭이의 이미지가 부정적이었으나 딸의 사랑을 받음으로서 딸이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의 예술을 승화시키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해갔다. 즉 이 작품을 통해 현재 독자들에게 우리가 가슴속에 지니고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상기시켜주고 있으며 자꾸 잊혀져가는 고마움에 대한 문화의 자세를 원숭이라는 동물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결국 원숭이는 보은을 통하여 화가 요시히데가 예술적 구원을 얻는데 큰 일조를 하기 위해 원숭이를 등장시킨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A study of "ZIGOKUHEN" by Akutagawa Ryunosuke -Through the save the gratitude of the monkey art-

In result of the study for gratitude of monkey in "Zigokuhen" till now, the progress of appearance of monkey was denial image at first. In the first time, it was drawn as denial image not only to be hated from itself of all human being. However, it may be said that the writer may make to cast off from the denial image after all. And also, by this kind of works, it gives chance to provide to revenge to Oodono from Yosihide. Even if we can understand from the culture of Japan, we may think it will be a realization of kindness for his master. in its result, in this works, the image for monkey was denial image, but it changed to an affirmative image to make sublime the arts of father since he receives from his daughter. For example, through this works, it will remind what is the things to the readers to live with our mind and also we can think through the animal who is monkey for cultural attitude for thanks. If I saying again, we may think that Yosihide may appear monkey to get big help to get an artistic rescue.